날씨 건조·상춘 인파… 화재사고 '초비상'

주말 광주·전남 산불 등 80여건 화재

임야·주택 소실…인명 피해도 잇따라

고온건조한 봄날씨와 함께 나들이 인파가 늘어나면서 '산불 비상'이 걸렸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8~10일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18건의 산불을 비롯, 크고작은 80여 건의 화재가 잇따라 많은 피해를 냈다.

◇광주·전남 피해 잇따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12시께 광주시 북구 청풍동 한 야산에서 불이나 소나무 등 0.05ha를 태우고 진화됐다. 또 10일 오후 3시 4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들판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져 잡초와 잡목 등 200㎡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전남에서도 10일 오후 3시께 영암군 신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일대 산림 0.3ha를 태우고 오후 5시께 진화됐다.지난 9일 14시20분께는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삼나무 등을 태웠다.

전남소방본부는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589건의 화재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도 잇따라 올들어 10일까지 11명이 화재로 숨졌고 23명이 다쳤다.

전북에서는 지난 9일 오후 3시께 남원시 아영면 의지리 한 들판에서 잡풀을 태우던 양모(80)씨와 아내 김모(여·78)씨가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밭두렁에서 잡풀을 태우던 중 강풍에 불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려다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전국이 산불 비상=지난 9일 오후 8시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에서 불이 나 강풍을 타고 약 5㎞를 북상하며 이동 경로에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 19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이 불로 산림 50ha와 건물 23채가 불탔고, 가축 560여 마리가 폐사했다. 언양을 지나는 국도 24호선과 35호선 일원이 검은 연기로 뒤덮이면서 구간이 정체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탑산에서 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대형 화재로 번졌고 인근 아파트와 주택 등 53가구를 태우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산불 방화 혐의로 중학생 A(12)군을 붙잡아 조사 중으로, A군은 친구와 함께 장난을 치던 중 나뭇잎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폐기물 소각을 자제하고, 꼭 필요할 경우엔 사전에 소방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날이 풀리며 입산자가 증가하면서 산불도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산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등 시민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무등산 순환버스 "환영" 휴일인 10일 오전 광주역 광장 승강장에서 올들어 첫 운행에 나선 '무등산 순환버스'를 탄 시민들이 차에 오른 뒤, 출발에 앞서 손을 흔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군산 앞바다 조업중 어선 화재

바다에 뛰어든 선원 9명 사망

20t급 통발…1명은 실종

지난 9일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 바다에 뛰어든 선원 9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다.

이날 새벽 5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24㎞ 해상에서 조업 중인 통발어선 20t급 201현승호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직후 선장 박모(50·경남 통영시)씨 등 선원 11명이 바다로 뛰어 내렸다. 1명을 제외한 10명은 해경과 해군에 구조됐으나 이 가운데 9명이 숨을 거뒀다.

화재를 목격한 선원은 "기관실에서 연기가 났고 불이 기름탱크 쪽으로 옮겨 붙었다"며 "불이 커지자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군산해양경찰은 경비함정 11척과 고속정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 온도가 너무 낮아 바다로 뛰어든 선원 대부분이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말했다. 해경은 시신을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에 안치하는 한편 사망자와 실종자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고액 학원비 강제로 끌어내린다

학원 교습 밤 10시 제한 조례 확대에 전남 단축여부 주목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와 학원비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전국으로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밤 11시50분으로 규정돼 있는 전남지역의 경우 교습시간이 단축될 지 주목된다. 지난 2010년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놓고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가 갈등을 빚었었다.

정부는 지난 8일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학원비 안정화 추진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원비가 높은 학원에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로 학원비를 끌어내리겠다는 얘기다.

또 새 학기를 맞아 학원비가 지나치게 오른 지역에서는 이달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실태조사를 벌이고,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를 통해 광주 27개 학원 46건, 전남 33개 학원 4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학원 관계 법령도 정비한다. 불법 운영 학원에 부과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서울·경기 등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전국 시·도로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초등·중학생 밤 10시, 고교생 밤 11시50분으로 규정돼 있는 전남지역은 학원 교습시간을 모두 밤 10시로 단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전남도교육청이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자 전남도의회는 당초 밤 12시에서 10분만 단축키로 수정·의결해 갈등을 겪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 건강권을 위해 학원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교과부와 공조해 법령 정비 등 교습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학원의 이름·교습비·교습과정·강사명단 등을 공개한다. 학원비를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시행도 확대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택시요금 인상 폭

오는 19일 최종 결정키로

전남도는 오는 19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 폭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택시운송 조합의 인상요구안(30.5%)과 전문가 검증용역(26.2%), 다른 시도 평균 인상률(17.8%) 등을 놓고 최종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1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검증용역과 시도 평균 인상률 등의 중간 범위인 22%를 검토한 바 있다. 이 경우 택시 기본료는 현행 2300원에서 2800원으로, 164m당 100원을 부가하던 거리 요금체계는 134m로 줄게 된다. 인상폭이 결정되면 4월부터 적용된다.

/장필수기자 bun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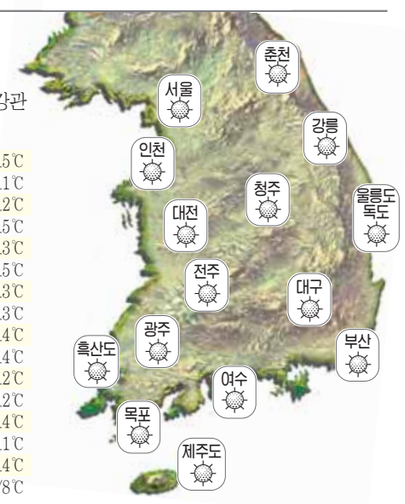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49분 해짐 18시 36분 | 달뜸 06시 03분 달짐 18시 10분

감기 조심

아침과 낮 기온차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광 주	맑음	-1/15℃
목 포	맑음	-1/11℃
여 수	맑음	-3/12℃
나 주	맑음	-2/15℃
완 도	맑음	1/13℃
구 례	맑음	-4/15℃
강 진	맑음	-2/13℃
해 남	맑음	-2/13℃
장 흥	맑음	-3/14℃
순 천	맑음	-4/14℃
영 광	맑음	-2/12℃
진 도	맑음	1/12℃
전 주	맑음	-3/14℃
군 산	맑음	-3/11℃
남 원	맑음	-4/14℃
흑산도	맑음	1/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먼바다	북~북동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매우높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밀물	썰물
목포	01:37 14:11	06:56 19:24
여수	09:03 21:13	02:33 15:0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날 씨						
최저/최고	3/16	7/9	2/13	3/14	5/14	4/14

벌써 내년 선거 의식했나

광주교육 쓴소리 박표진 전 부교육감에

장휘국 시교육감 "악의적 왜곡" 반박 글

최근 퇴임하면서 광주교육에 대해 쓴소리를 했던 박표진 전 부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정면 반박, 양자간 '설전'이 벌어졌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교육감과 부교육감으로서 광주교육을 책임졌던 이들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갈라져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전 부교육감의 '조직 내 불통' 주장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덜 반영되는 것을 놓고 소통부재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박 전 부교육감이 "시교육청이 성적 하락을 애써 외면하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장 교육감은 "실력 추락 운운은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반박을 넘어 불쾌감을 표시했다.

'실력광주 하락'과 '소통 부재'를 놓고 벌어진 현직 교육감과 전직 부교육감 사이의 이같은 '설전'을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조기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입지자들의 잇단 출마의사 표명에 이어 세 확대를 겨냥한 진보-보수의 편가르기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이라는 시각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